

‘꽤’ 소리 나는 폭염... 목마른 오리들



연일 찜통 같은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1일 논산시 부적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더위에 지친 오리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중도일보 손인중 기자 2012. 08. 01

풍미를 더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올레 훈제오리 슬라이스’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난 피서지 음식으로 으뜸이다. 간편하게 프라이팬에서 조리해 맛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익혀 먹기 위해 불을 피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리에 함유된 타우린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줘 아이들 간식으로, 어른들 술안주로도 좋다.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국가공인 HACCP(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 인증마크를 획득해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조선닷컴 라이프미디어팀 정재균 PD 2012. 07. 31

장윤정 김치와 훈제오리가 만나면? 올레!

김치, 만두에 이어 훈제오리까지,

장윤정의 올레 행진

이번에는 오리다. 장윤정올레(주)에서 김치, 만두, 각종 반찬에 이어 훈제오리를 출시했다. 장윤정올레(주)는 가수 장윤정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치 브랜드다. 지난해 3월 ‘김치올레’를 시작으로 ‘만두올레’, ‘찬올레’를 선보였다. 출시 직후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건강하고 정직한 먹거리로 소문나면서 재 구매하는 고객이 90%에 이른다.

장윤정올레(주)에서는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100% 국내산 오리로 만든 ‘올레 훈제오리 슬라이스’를 출시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낮은 칼로리로 다이어트 시 영양보충 음식으로 좋다. 훈제를 통해 남아있는 기름기까지 제거하고 참숯향으로

칼로리 쏘옥~ 뺀 날씬한 보양식

말복을 앞두고 더 가볍고 세련된 몸보신 음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웰빙족이나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리, 양고기 메뉴들이 삼계탕이나 보신탕의 자리를 대신한다.

▶성인병 예방엔 오리고기

오리는 유일한 알칼리성 육류로 체내 산성화를 막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없는 비타민A가 풍부하며 단백질은 닭의 3배인 20%가 들어있는 반면 지방 함유량은 6.3%밖에 되지 않아 ‘가벼운 보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오리고기 전문점인 배나무골에서는 오리를 활용



한 여름 보양 메뉴를 선보인다. 오리가슴살을 여러 한약재로 오랜 시간 졸여 만든 일품요리인

오향수육, 오리 다리살을 참나무와 대추나무 연기에 훈제한 연훈제 등이 대표 오리 보양식이다.

포커스신문사 이윤경 기자 2012. 08. 05

유통기한 지난 닭 · 오리 유통 적발

세척 뒤 재포장 2000마리 납품 ... 6년간 6억원 ‘꿀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닭 · 오리고기로 소비자를 우롱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 · 오리를 세척한 뒤 볶음탕용으로 재포장하거나 포장용기의 유통기한 표시를 바꾸는 수법으로 정상제품처럼 시중에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M유통 대표 김모(41)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향남읍 소재 M유통을 운영하면서 대형 마트 등 거래처에 납품한 생닭과 오리 중 유통기한(10일)이 지나거나 1~2일 가량 남은 제품을 수거

한 뒤 새롭게 진공포장해 재포장 날짜를 제조일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다. 또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냄새와 진물이 발생하는 제품은 찬물에 씻어 볶음탕용으로 포장, 화성 · 안산 · 평택 · 수원 등 도내 350여개 식당 등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단속된 뒤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단속 직후에는 화성시 팔탄면에 T유통이라는 동종업체를 설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판 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닭 · 오리가 월 평균 2000마리(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6년여에 걸쳐 6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유통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날과 런던올림픽 등이 맞물려 닭 · 오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양규원 기자 2012. 08. 02

오리 수출국과 검역 협의 조속히

오리가 지난 6월 수출전략품목으로 추가 선정된 가운데 오리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출대상국과의 검역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리는 1990년대 이후 웰빙음식, 보양식으로 인기를 얻으며 훈제, 주물럭, 백숙 등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오리는 다른 가금류와 달리 고기와 알 뿐 아니라 털 등의 부산물도 이용가치가 높

다는 장점이 있다. 장미진 농림수산물부 서기관은 “2012년 상반기 오리 수출실적은 306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2.24% 상승했다”며 “이 중 오리 간, 근위, 발 등이 포함돼 있는 오리기타 부분이 179만달러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한인회가 주축으로 연 훈제오리 시식회가 현지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중국에서는 훈제오리제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버려지고 있는 근위, 뼈, 발 등 부산물들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와 검역협약이 추진되지 않아 정상적인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많은 업체들이 조속한 검역협약을 촉구하고 있다.

최수영 (주)코리아더커드 수출팀 과장은 “훈제오리는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오리 부산물 수요가 높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오리목을 중국에서는 꼬치에 꽂아 파는데 옥수수처럼 뜯어 먹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고 전했다. 현재 (주)코리아더커드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은 훈제오리와 오리 부산물. 수출을 시작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코리아더커드의 다향오리를 찾는 바이어들의 문의가 많다. 최 과장은 “중국 바이어와 수출협약을 완료했지만 중국과 검역이 체결되지 않아 현재 베트남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비용이 2~3배 정도 더 들어 하루빨리 중국과의 검역이 체결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빠른 검역 협의도 촉구했다.

최 과장은 “AI발생 이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지 1년이 다돼가는 데 아직 일본에 수출을 못하고 있

다”며 “유통공사에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농식품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도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다양한 회의나 세미나에 참가해 매번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화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주무관은 “현재 가금류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중국 등과 검역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며 “국가마다 검역협약에 속도차이가 있지만 업체가 요구하는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해당국에 신속한 처리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김효진 기자 2012. 08. 02

“가축사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할 수 있다”

축산단체, 공동 의뢰 연구용역 결과 발표

주거 밀집 지역과 축사와의 최소 제한 거리를 환경부 권고안 보다 짧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결과를 축산법 시행



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할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축사육 시설 설치 제한 규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축산관련 5개 단체가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의뢰한 ‘가축 사육시설 설치 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 김두환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다. 최종 보고회는 지난달 30일 제 2축산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과 축사의 최소 제한 거리에 대해 한우의 경우 △50두 이상은 50m △100두 70m △200두 이상은 100m로 나타났다. 젖소는 50두 이하와 100두는 한우와 같은 수치가 나왔으며 200두 이상은 150m로 조사됐다.

돼지의 경우 △2000두 이하는 180m △3000두는 250m △4000두 이상은 320m이며, 가금의 경우 △6만수 이하는 180m △9만수는 250m △12만수 이상은 320m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거리를 두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방법은 한우 9호, 낙농 9호, 돼지 19호, 닭 5호, 오리 6호 등 총 48호를 직접 방문해 영농실태를 확인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농장 부지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 확산 정도를 측정했다.

김두환 교수는 이날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등 모든 조사대상 농장이 환경개선훈을 사용해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특히 양돈의 경우 조사 농가 중 60%가 최근 2년간 민원이 발생해 악취저감을 위해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농가의 저감노력 요인들도 추가로 고려해 실제 축사시설의 제한거리 결정시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

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 설치 규제가 환경부 권고안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이번 결과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축산법시행령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법시행령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명시할 경우 이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2012. 08. 03

한국의 오리산업, 하늘높이 날아오르다

생산량과 소비량, 2년새 50% 급증

웰빙 먹거리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의 오리산업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4일 농림수산물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오리 생산량은 지난 2009년 10만2597톤에서 지난해는 15만3218톤으로, 불과 2년 사이 49.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비량도 같은 기간 10만2629톤에서 15만7633톤으로 53.6%나 늘었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110그램에서 3110그램으로 47.4% 증가했다. 생산량과 소비량 증가는 특히 작년중 두드러졌다. 생산량은 2011년 한 해만

도 33.0%, 총 소비량은 34.0% 각각 증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리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동반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보다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수입량도 2009년 34톤, 2010년 2395톤, 지난해에는 4415톤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10년에는 국산 오리고기 275톤이 해외로 수출됐다. 한편 2010년 말 현재 국내 오리 사육수수는 1439만7301마리, 사육가구는 5126가구이며, 총 생산액은 1조3059억원이었다.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 2012. 08. 04

■ 살인적 더위에 축산농가 ‘비상’

전국서 닭·오리 등 10만마리 폐사

전북에 피해 집중...충북은 '0건'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더위에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닭(10만마리), 오리(7천마리), 돼지 45마리 등 가축 10만 7천45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이상수온으로 바지락(10ha)이 집단 폐사해 수산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폭염으로 집단 폐사 늘면서 피해 보상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3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추가된 '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에 따라 지난 달 7월20일부터 2일까지 총 6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닭 53건, 돼지 10건, 오리 3건 등으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피

해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농가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 사육돼 폭염에 취약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에 집중됐다. 특히 소, 말, 사슴 등은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이 아닌 그 외의 원인불명(폭염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모두 보장돼 폭염만 따로 집계되지 않는 데 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집중된 전북 지역이 가장 많았고 충북지역 피해 신고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염피해 접수는 가금류와 돼지 사육농가가 특약사항으로 지난 3월부터 가입한 농가(1만66건)만 해당돼 신고 접수되지 않은 폭염피해 농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보험료 총액 50%), 지방자치단체(20~30%)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농가가 부담한다. 충북은 도비 5%, 시·군비(20%)에서 25%를 지원해 농가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마리가 사육되는 가금류와 돼지는 더위에 취약해 대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환풍기 등 전기적 장치로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더위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 피해 규모나 보상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가축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연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들은 가입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늘자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확대운영하고 축사환기, 음용수 공급 등 철저한 가축사양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닭은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여

틈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닭장 안은 환풍기 등 강제통풍을 해주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일보 안순자 기자 2012. 08. 05

가축분뇨법 시행 늦어질듯

축사절반 무허가...규제강화땐 축산기반 흔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축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축분뇨법 개정 및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미 5월7일~6월16일 입법예고를 거친 데 이어 7~8월 중에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환경부가 마련한 법안은 ▲가축분뇨 무허가 배출시설(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 등의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축사는 현재 환경부의 가축분뇨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건축법 등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전체 축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허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의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은 축산업 기반을 크게 흔들는 조치라며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실제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가 6월 전국 60개 시·군의 전업규모 이상

인 600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9.5% 농가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 무허가축사 비율은 오리 72.5%, 육계 62%, 낙농 54%, 한우 42%, 산란계 35%, 양돈 16% 등이었다.

이 때문에 농협·축종별생산자단체·축산관련 학계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자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법안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어 환경부의 방침도 당초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계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축산업계 비대위에 참석중인 한 관계자도 “현재 가축분뇨법 개정작업은 전체 축사의 절반가량이나 되는 무허가축사에 대해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부처의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한달에 두세차례 모임을 통해 실무작업을 벌이는 만큼 9월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12. 08. 08

복철 오리고기값 ‘나홀로 강세’, 왜?

업계 “수요 증가 영향 아닌 공급량 감소가 주원인”

복철에도 대부분의 축산물이 예년보다 낮은 가격

대를 보이는 반면 오리고기는 강세를 띠고 있어 공급증을 낳고 있다. 업계에선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닌 공급량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오리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오리시세를 보면 신선육(2kg 기준)은 8600원으로 7월 평균가격 약 7700원보다 900원 가량 상승했고, 지난해 7월 평균가격인 8400원보다도 200원가량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오리업계가 본격적인 성수기 특수를 맞은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업계의 자체적인 물량 감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리계열업체인 (주)코리아더커드의 최수영 생산관리팀 과장은 “재고가 많이 쌓인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7월부터 작업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가량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소비는 예년에 비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판매 매장 수가 늘어나 소비 빈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오리관측 속보를 통해 당초 8월 오리산지시세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인 4300~4800원(생체 3kg기준)보다 높은 6400~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2. 08. 08

서울·경기 최초 오리도체 등급판정 실시

평가원 서울지원, (주)자연일가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무상)은 1일부터 오리도체 등급판정을 (주)자연일가(경기 파주시 법원읍 소재, 대표 신동근)에서 서울·경기지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도체 등급판정은 2011년 11월 21일 (주)코리아더커드(전북 남원시 조산동 소재, 대표 박영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주)자연일가를 포함하여 총 8개 업체에서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오리도체 등급판정은 생산자에게는 등급판정결과의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좋은 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지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품질과 등급판정일자를 제시하여 현명한 소비를 위한 구매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유무상 지원장은 “앞으로 오리도체 등급판정을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가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를 쉽게 구분하여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오리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홍귀남 2012. 08. 09

중양백신, 오리 패혈증 효과적 예방 ‘주목’

중양백신연구소가 오리 패혈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새백신 ‘포울샷 리메렐라’<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오리 패혈증은 주로 3~5주령 사이의 오리에 감염돼 높은 폐사와 증체 불량, 사료효율 저하 등을 유발하고 증오리의 경우 산란저하와 종란의 품질저하를 일으켜 오리 산업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이다. 특히 패혈증의 원인체인 리메렐라균의 경우 나라마다 유행하는 혈청형이 다르고 병원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는 주로 4개의 혈청형이 유행하고 있는 데 이중 1형과 7형의 병원성이 매우 강해 오리농장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중양백신연구소의 ‘포울샷 리메렐라’ 백신은 1형과 7형의 혈청형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 유행하는 오리 패혈증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오리고기에 대한 항생제 잔류문제에 많은 제한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패혈증 발생 시 농장에서는 항생제 투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항생제 투약만을 통한 패혈증 치료가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양백신연구소의 이번 신제품이 오리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종만 중양백신연구소 수의사는 “리메렐라 백신접종은 패혈증 예방을 통한 농장의 수익 증대와 안전한 오리고기 공급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2012.08.08

성장기 오리고기 꼭 먹어야 하는 까닭



오리고기는 육류 중에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고, 단백질, 무기질 등이 풍부한 식품이다. 닭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나,

올렌산, 리놀렌산 등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산으로 오히려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오리의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소나 돼지에 비해 높으며 닭에 비해서도 높아 날아다니는 등푸른 생선이라 표현해도 될 정도다.

또한 체내 대사활동에 필수적인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 무기질 함량도 높은 고급 육류다. 체내 대사조절, 성장기 발육촉진,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 관여하는 비타민 A와 B군이 타 육류에 비해 풍부하다. 칼륨, 인, 마그네슘, 칼슘, 철, 아연 등 무기질 함량이 높아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도 하다. 콜라겐, 황산 콘드로이틴 등의 함량이 높아 피부미용과 뼈, 관절, 연골의 생성에도 기여한다.

중국 최고의 미식이 서태후가 미용식으로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리고기는 비만예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동맥경화로 인한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요 육류가 산성인데 반해 오리고기는 알카리성을 띠고 있어 체액이 산성화 되는 것을 막는다. 이 덕분에 피부노화를 방지해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

시켜 주며 특히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미용에 좋다. 이 같은 특징은 오리고기 기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오리고기 기름에는 육류 중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혈액에 쌓여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등 순환계 질환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산과는 달리 혈액 내 쌓여있는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상온에서 잘 굳는 포화지방산과는 달리 불포화지방산은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오리기름은 실제로 상온에 두었을 때 타 육류의 기름과 달리 굳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김지혁 농촌진흥청 박사는 “오리는 맛이나 영양적 가치가 뛰어난에도 다른 육류에 비해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며 “오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소비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고흥광 기자 2012. 08. 12

4대강 최악의 녹조류... 축산업계로 불똥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 속도 낼 기세
주요 국가 하천에 녹조류 발생으로 정부가 4대강 주변 수질관리 계획을 밝히면서 불똥이 축산업계로 튀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조류 발생 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량감소, 고온과 긴 일조량으로 인한 조류생물 활동이 왕성해진 것으로 발표했으나 환경관련 단체 등은 4대강 사업 시 설치한 보 건설과

그에 따른 유속하락을 이유로 지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보의 수문을 열어 조류의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하천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부가 8월 11일 발표한 '주요 상수원 녹조 발생에 따른 상수원 수질·정수 대책'에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녹조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영양화를 막아야 한다며 인·질소가 고농도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변구역 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무허가·미신고 시설 폐쇄명령 근거 마련,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방류수 질소·인의 방류 기준을 2~3.4배 높이는 등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8월 12일에는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 점검 결과도 발표해 미묘한 시기 가축분뇨가 이번 녹조류 발생에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환경부 4대강환경감시단 직원들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반을 편성해 904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1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유역총량과 전형률 사무관은 사전에 점검 계획을 공지한 일상 점검이라고 밝히고 발표시기가 지자체의 자료취합 등의 시간이 걸

려 8월 13일자에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 점검이 7월 20일에 끝이 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녹조류 발생에 축산농장의 불법행위가 주원인으로 비춰지도록 보도자료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부인하고 녹조류 발생과 연관 짓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2. 08. 17

보성군 “오리 드시고 힘내세요”

한국오리협회, 보성군 사회복지시설에 건강식품 기증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에서 보성군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건강 보양식품인 오리 훈제를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한국오리협회에서 최근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23개소를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오리훈제 144마리(2,160천원 상당)를 시설 별로 전달하여 폭염으로 지친 시설 이용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예로부터 오리는 닭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보양식품으로 꼽힌다”면서 “이번 물품 전달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후원자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관계자는 “1994년 이후 폭염, 열대야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맛있는 오리 훈제가 더위

에 지친 아동과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소나기 같은 깜짝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2. 08. 20

짐통더위 이른 물난리... 농민들 애간장

전북·충남지역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침수... 양식어류 유실 피해도

폭염에 이어 폭우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산 지역에 최고 443여mm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등 전북도내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려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우로 전북지역에서는 논 5943.1ha, 밭 22.1ha, 원예특작 39.6ha 등 농경지 6004.8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축사 침수로 닭 4만 5500마리, 오리 1만3000마리 등 모두 5만85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내수면양식장의 메기 10여만마리가 유실됐다.

이에 앞서 전북지역은 지난 7월 21일부터 20여일 동안 일일 평균 35.4℃의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쳐 가축 폐사 등 많은 피해를 봤다. 이 기간 동안 닭 46만5752마리, 오리 3만 6930마리, 돼지 87마리, 젓소 8마리 등 모두 142농가에서 50만2777마리가 폐죽음을 당했다. 또 부안에서는 바지락 265톤이 폐사하는 폭염 피해를 입었다. 이에 14일 전북도와 군산시는 김완주

지사와 관련 공무원, 군부대 등이 이번 폭우로 수만마리의 닭이 폐사한 군산지역의 한 농장에서 복구 지원 작업을 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충남 지역에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 지난 14~16일 3일 간 충남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되고 양계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강우량은 청양이 208mm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 143mm, 홍성 122mm, 당진 115mm, 태안 108mm 등 도내 평균 10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로 주택침수 57세대(86명)와 도로 토사 유출 11개소, 농경지320ha가 침수됐다. 또 공주시 정안면의 양계장에 화재가 발생해 양계장 1동 192㎡가 불타고 병아리 1만여마리가 소사해 소방서 추산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윤광진 기자 2012.08.20

인 5백9십만수를 전남도의 390여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6개의 오리전문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어 오리산업의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번에 신규로 오리등급판정업체로 지정된 신촌자연오리(대표 곽재운)는 일 21,000수를 도압가공하는 급식, 대형마트 등을 납품하는 중견업체로 오리등급제 시행으로 시장차별화와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규진광주전남지원장은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꾸준히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제일 많은 4개의 도압장에서 등급판정이 시행됨에 따라 오리고기의 대중화와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2012. 08. 21

전남도, 오리등급제 메카 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오리고기의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고 생산·유통·소비의 지표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주)정다운, 팔도코리아, 하이덕에서 오리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신촌자연오리에서도 오리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가 명실공히 오리등급제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의 오리 사육두수는 1천3백만수로 이중 45%

농식품부, 사료구매자금 확대 편성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및 사료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 지원자금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일 확정된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사료구매 관련 예산 중 사료업체에 대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95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축산농가의 외상구입에 따른 배합사료 구입자금 부담을 경감키 위해 현금으로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로 500억원의 융자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간 12~18%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해 왔던 축산농가로서는 사료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국방부와 함께 군부대 내에서 조사료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한 후 다음 달에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군부대·농협간의 MOU를 체결해 조사료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인천시에 위치한 CJ 대두유·사료공장과 동아원 제분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곡물의 할당관세 연장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식료품 및 사료가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내 물가 안정에도 노력하겠다”며 “국제곡물가 상승의 장기화에 대비해 관련업체들도 곡물 수요량 확보와 생산비 절감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12. 08. 22

영양사가 뽑은 우수식품 ‘쌀과자 · 훈제오리’

(사)대한영양사협회가 최근 개최한 ‘제19회 식품·기기전시회’에서 영양사가 뽑은 우수제품으로 우리쌀 과자와 훈제오리고기 등이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영양사 및 영양교사에게 최신의 식품 및 기기관련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 참여업체가 추천하는 자

사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우수제품을 직접 선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주)대두식품의 우리쌀 구움과자 △(주)오뚜기의 양조간장(1.5L) △(주)코리아더커드의 다향오리 훈제슬라이스가 우수제품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농어민신문 2012. 08. 23

하반기 공급과잉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 불가피

사료안정기금 · 가격보험 등 중장기 과제 검토 필요

하반기 축산업계에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축종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침체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또 다시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22일 ‘2012 하반기 축산물 가격 전망과 대응’이란 주제로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연구위원은 ‘2012년 하반기 주요 축산물 가격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부분 축종의 사육두수와 잉여에 따른 공급량 증가와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하반기 축산물 가격 약세를 전망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각종 소비 프로모션 및 할인행사의 수요 증진 효과 약화 우려와 배합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가격보험제도 등과 같은 중·장기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 정민국 축산실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한우협회 장기선 사무국장은 송아지 안정제 발동 기준이었던 165만원이었던 시기에는 송아지가격의 하한가로 165만원이 지켜졌으나 지금은 안정제사업 개편 이후 100만원 이하까지 가격이 폭락했다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암소도태사업이 생각보다 부진하다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도태사업보다는 암송아지를 정부나 농협 등이 구매해 육성하다 수급상황에 따라 도축 또는 번식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조재준 부장은 구제역 이후 낙농업은 원유가 모자라면서 농가들에게 쿼터를 임의로 배분해 구제역 이전보다 220만톤 규모였던 쿼터가 225만톤까지 늘어났다고 하며 올 하반기까지는 현재의 쿼터가 유지되며 공급과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 원유가격 인상 이후 낙농업계는 원유가 연동제를 도입했다며 내년 1분기 사료가격이 인상될 경우 통계청 생산비 조사 내용을 근거로 8월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농가소득 보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지금의 돈가 하락은 인제라 규정하고 이미 1월 개최된 농업전망에서 하반기 돈육 공급과잉이 전망됐음에도 불구하고 10만톤의 삼겹살을 무관세로 들여오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에서 재건한 농가의 생산비가

1kg당 5000원으로 하반기 돈가가 더욱 하락하고 내년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될 경우 상위그룹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육협회 이재하 부장은 올 1분기 이미 1000억원대의 손실을 계열주체들이 입었다며 종계과잉 입식과 종계의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할 때 비수기로 접어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난해 AI 발병 이후 17만5000수의 종계가 도태된 이후 계란가격 및 병아리 가격 상승에 기대감에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3개월째 사료비 이하로 난가가 형성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는 상반기 자체 수급조절 사업으로 업계가 한숨은 돌렸지만 소비가 부진한 상황인지라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수급 불안 요인인 F1 종오리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이러한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2. 08. 24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GPS 장착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300㎡(91평) 이상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농민신문 성흥기 기자 2012. 08. 24

오리값 다시 하락...

사육수수 유지 만전을

오리협회, 계열업체·부화장·농장에 협조 요청
“수급안정 중요...F1 생산 새끼오리 입식 말아야”

여름철 성수기 수요로 반짝 상승세를 보이던 오리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오리협회가 적정사육수수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8월 24일 오리 계열업체 및 부화장, 종오리 농장 등에 오리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리협회는 우선 검정되지 않고 계통보증서가 없는 종오리의 사육을 중단할 것과 F1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는 절대 입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능력이 떨어지는 종오리는 조기에 도태시키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 수수를 입식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오리고기 소비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리자조금 거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리협회가 이 같이 나선 것은 지난해 HPAI발생 이후 무분별한 입식으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폭락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는 “연초에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조절을 추진해 오리값이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재고가 남아있고 여름철 이후 오리고기 소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더욱이 오리의 경우 생산주기가 짧아 언제든지 과잉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적정 사육수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리협회는 오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F1 오리사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불법 오리사육 및 부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2. 08. 29